

융복합시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유형 간의 관계

박미경¹, 김진주², 강균영^{2*}
¹아주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²경동대학교 간호학부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Use,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ying Situation of Adolescents in Era of Convergence

Mi-Gyeong Park¹, Jinju Kim², Gyun-Young Kang^{2*}

¹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Doctoral course student)

²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융복합시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태도, 학교폭력 역할유형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G시 소재 2개 중학교 재학생 341명이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유형 및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07월 02부터 07월 25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사용은 학교 폭력 태도($r=.269, p<.000$)와 강화자($r=.251, p<.000$)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이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역할 유형에 따른 개입과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규명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 학교폭력 역할 유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스마트폰, 학교, 폭력, 역할 유형,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martphone use,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ying situation of adolescents in era of convergence. The participants were 341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wo school in G city. smartphone use,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ying situa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ere measur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2 to 25, 201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showed smartphone us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chool violence attitudes($r=.269, p<.000$) and Bullies($r=.251, p<.000$). The finding indicate that smatrphone use has an influence on school violence. Intervening approach to prevent and reduce bullying according to each types were requir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middle school students' smartphone use and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ying situation.

Key Words : Adolescent, Smartphone, School, Violence, Bullying, convergen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 연령대로 일상화되고 있고, 습관적인 사용 및 과다 사용으로 인한 역기

능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1]. 2016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 과의존 위험군은 2011년 7.2%에서 2016년 15.3%로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10대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1.6%로, 성인의 13.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Corresponding Author : Gyun-Young Kang (mental74@kduniv.ac.kr)

Received December 13,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8

Revised December 20,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8

내[1],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문제와 부작용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은 중학생이 고등학생 및 초등학생보다도 높게 나타나[1,3] 중학생에 대한 스마트폰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발전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급격한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가족관계, 학교생활 및 진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4].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은 이러한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크다[5]. 청소년기에는 도파민의 분비와 기능은 최고조에 달하고, 행동과 인지적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가장 늦게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대뇌의 발달은 외부 자극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위험해 보일 수밖에 없다[6].

이렇게 신체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은 청소년들의 신체, 학습성적,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7].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휴대폰을 통한 언어폭력 등의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과 비행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8], 스마트폰 고위험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안전 집단보다 동조성, 모방성, 충동성, 사회적 고립감 및 불안감이 높았다[9]. 이렇듯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정서·행동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스마트폰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스마트폰 과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휴대폰 언어폭력[8] 및 정서·행동문제[10]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 역할 유형으로는 적극적,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가해자, 적극적으로 폭력에 가담하여 가해자를 따르는 보조자, 폭력을 부추기거나 강화하는 강화자, 피해자를 지지해주는 보호자, 폭력이 발생해도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받아들여 개입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해 지지하는 마음은 있지만 보복이나 고립이 두려워 모른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방관자 역할로 설명하고 있다[1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조 1호[12]에서 학교폭력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7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피해 경험이 0.5%, 가해 경험 0.2%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34.1%)과 집단 따돌림(18.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스토킹(13.7%)과 신체폭력(12.6%)이 높은 반면 중학생의 경우 사이버 괴롭힘(14.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13]. 이러한 학교폭력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며[14], 점점 더 저 연령화, 집단화, 잔인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집단이 비 중독적 사용 집단에 비해 MMPI 중 Ma(경조증) 척도가 높게 나타나, 이 영역에 속하는 청소년은 생각보다는 행동을 선호하며 활동 과다, 충동적, 충동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힘든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15].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중학생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및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과 예방 및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회발달을 이루어갈 수 없도록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등 학교폭력 역할 유형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16].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며[17], 피해 경험이 많은 학생이 가해 경험 또한 높다[18].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며, 이러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역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 변인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학교폭력 태도와 학교폭력 역할 유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및 학교폭력의 예방 및 적절한 방안 마련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 학교폭력 역할 유형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2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3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0, 검정력 .90을 기준으로 필요한 표본수를 산정한 결과 최소 256명이었다. 최종 341부를 대상자로 표출하여 필요로 하는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Kwon [19]의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금단 및 가상관계 5문항, 학업장애 및 내성 5문항으로 총 10문항이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898 이었고, 영역별 Cronbach's α 는 금단 및 가상관계 .854, 학업장애 및 내성 .825로 나타났다.

2.3.2 학교폭력 태도

Rigby & Slee [20]이 개발한 또래 폭력에 대한 태도를 Jung, Shin & Cho [21]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또래 폭력에 대한 허용 정도, 피해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 피해자에 대해 지지적인지, 방관적인지 알 수 있다. 총 1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에 대해 허용적이고, 방관적이며, 피해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776 이었다.

2.3.3 학교폭력 역할 유형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almivalli, Voeten [22]이 개발한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PRQ)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보조자, 강화자, 보호자, 방관자와 가해자 총 5개의 역할에 대한 하위 척도로 각각 3문항, 총 15문항으로 Likert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가지 역할 중 하나의 역할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5가지 하위 척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척도로 해당 학생을 가해자, 보조자, 강화자, 보호자, 방관자 중 하나의 역할로 분류할 수 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07월 02일부터 2014년 7월 25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장소는 G시에 소재한 2개 중학교였다. 연구자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고 진행하였다. 각 대상 학생들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서면동의를 받고 자료수집을 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립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주변인 행동척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주변인 행동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이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2.6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진행을 위해 연구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시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고,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코드로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결과 여학생이 61.3%였고, 89.7%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최근 6개월간 학교 폭력 및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여부는 각각 92.7%, 95.0%가 폭력 피해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6개월 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및 사이버 폭력 가해 여부도 각각 95.9%, 97.1%가 가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은 성별($t=-4.760, p<.000$), 모친 학력($F=3.299, p=.021$), 최근 6개월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t=2.623, p=.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폭력 유형은 최근 6개월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t=.840, p<.000$), 최근 6개월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t=2.77, p=.00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간의 관계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 간의 관계는 Table 2와 같다. 스마트폰 사용은 학교폭력 태도($r=.269, p<.000$), 학교폭력 역할 유형 중 강화자($r=.251, p<.000$)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학교폭력 역할 유형중 보호자 유형은($r=-.142, p<.000$)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태도는 학교폭력 역할 유형 중 가해자($r=.240,$

Table 1. Smartphone Use,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ying Situ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ying situation			Smartphone Use		
			Mean ± SD	t/F	p	Mean ± SD	t/F	p	Mean ± SD	t/F	p
Sex	Male	132(38.7)	33.50±3.71	.539	.590	22.79±2.90	.969	.333	22.14±10.47	-4.760	.000
	Female	209(61.3)	33.31±2.74			22.53±2.08			27.78±10.77		
Drinking	Yes	4(1.2)	34.00±3.16	.393	.695	24.50±1.91	1.554	.121	20.00±10.58	-1.024	.307
	No	337(98.8)	33.38±3.15			22.61±2.43			25.66±10.99		
Living with	with two parents	306(89.7)	33.48±3.14	1.885	.153	33.48±3.14	1.885	.153	25.22±10.94	1.758	.174
	with one parents	27(7.9)	32.26±3.12			32.26±3.12			28.48±9.77		
	other	8(2.3)	33.37±3.16			33.38±3.16			30.00±15.25		
Education level father	above college	174(51.0)	33.45±3.44	.539	.656	33.45±3.44	.539	.658	24.85±11.00	.812	.488
	high school grad	114(33.4)	33.40±2.33			33.40±2.33			26.46±11.05		
	below middle school	3(0.9)	35.00±2.00			35.00±2.00			20.67±11.59		
	other	50(14.7)	33.00±3.76			33.00±3.76			26.50±10.85		
Education level mother	above college	157(46.0)	33.30±3.36	.165	.920	33.23±3.36	.165	.920	24.48±10.17	3.299	.021
	high school grad	127(37.2)	33.50±2.46			33.50±2.47			25.88±11.66		
	below middle school	11(3.2)	33.73±4.22			33.73±4.22			34.82±10.88		
	other	46(13.5)	33.26±3.83			33.26±3.93			26.39±11.01		
Recent 6 months of victims in school violence	Yes	26(7.6)	33.46±2.56	.480	.897	22.27±3.14	-7.782	.435	28.19±11.25	1.256	.210
	No	315(92.4)	33.37±3.20			22.66±2.36			25.38±10.96		
Recent 6 months of cyber victims in school violence	Yes	12(3.5)	33.08±2.50	-.366	.714	23.30±2.43	1.043	.298	31.46±13.13	1.988	.051
	No	324(95.0)	33.41±3.18			22.60±2.40			25.39±10.89		
Recent 6 months of bullies in school violence	Yes	13(3.8)	34.23±2.35	1.006	.315	25.15±2.15	.840	.000	33.38±12.31	2.623	.009
	No	327(95.9)	33.34±3.17			22.51±2.38			25.29±10.84		
Recent 6 months of cyber bullies in school violence	Yes	10(2.9)	34.10±2.64	.729	.467	24.7±2.63	2.77	.006	30.20±14.05	1.347	.179
	No	331(97.1)	33.36±3.1			22.57±2.40			25.45±10.88		

Table 2. Correlations of Smartphone Use,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ying Situation

Variables	Smartphone Use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ies	Assistants	Reinforcers	Defenders	Bystanders
Smartphone Use	1						
School Violence Attitudes	.269(.000)**	1					
Bullies	.083(.127)	.240(.000)**	1				
Assistants	.003(.950)	.194(.000)**	.507(.000)**	1			
Reinforcers	.215(.000)**	.464(.000)**	.298(.000)**	.299(.000)**	1		
Defenders	-.142(.000)**	-.408(.000)**	.008(.887)	.043(.431)	-.187(.001)**	1	
Bystanders	.056(.304)	.051(.352)	-.092(.092)	-.125(.022)*	.045(.406)	-.061(.266)	1

Table 3. Factors influencing school violence attitudes

Variable		B	SE	β	t	p
Smartphone Use	withdrawal and virtual reality	.130	.053	.158	2.439	.015
	schoolwork difficulty and tolerance	.003	.052	.003	.049	.961
Bullying situation	Bullies	1.005	.467	.111	2.109	.036
	Assistants	.461	.341	.072	1.351	.178
	Reinforcers	1.705	.276	.305	6.170	.000
	Defenders	-1.095	.149	-.337	-7.356	.000
	Bystanders	.095	.154	.028	.617	.538

R²=.366, F=26.543 p=.000

$p < .000$), 보조자($r = .194, p < .000$), 강화자($r = .464, p < .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호자($r = -.408, p < .000$)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가해자는 보조자($r = .507, p < .000$), 강화자($r = .298, p < .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조자는 강화자($r = .299, p < .000$)와 양의 상관관계, 방관자($r = -.125, p = .022$)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강화자는 보호자($r = -.187, p < .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4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의 하부 요인 2개와 학교폭력 역할 유형 5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가 .471~.973, 분산팽창인자(VIF)가 1.027~2.124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3과 같다.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마트폰 사용의 하부 요인 중 금단 및 가상관계($\beta = .158, p = .015$), 학교폭력 역할 유형 중 가해자(β

$= 2.109, p = .036$), 강화자($\beta = 6.170, p < .000$), 보호자($\beta = -7.356, p < .000$)였으며, 이들 변인은 학교폭력 태도에 36.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의 정도와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학교폭력 태도($r = .269, p < .000$), 학교폭력 역할 유형 중 강화자($r = .251, p < .000$)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학교폭력 역할 유형 중 보호자 유형은($r = -.142, p < .000$)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고위험군일수록 학교폭력에 허용적, 방관적, 피해학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교폭력 태도와 관련이 있고, 학교폭력을 부추기거나 강화하는 강화자 역할에도 관련이 있음

을 의미한다. 반면 피해자 곁에서 피해자를 지지하고 위로해 주고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멈추게 하는 역할[11]을 하는 보호자 역할은 감소하였다. Son, Ahn & Lee [23]도 휴대폰 중독적 사용군이 의존군과 비중독군에 비해 충동성, 스트레스, 불안이 높았고, 인터넷 게임 중독자의 특징적인 공격성은 감정조절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24]. MMPI에서도 활동과다와 충동성, 적대감, 공격성, 비현실성, 불안감의 특징을 보이는 Ma척도 영역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15]. 정서 표현을 잘 할수록 자아개념이 높아져 간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25].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스마트폰 과사용과 폭력이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긍정적인 대인관계, 공감 능력 등 사회·심리적 특성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적, 지지적 접근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사회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공감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래 폭력에 대한 허용 정도, 피해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 피해자에 대해 지지적인지, 방관적인지 알 수 있는 학교 폭력 태도[20]는 학교폭력 역할 유형 중 가해자($r=.240, p<.000$), 보조자($r=.194, p<.000$), 강화자($r=.464, p<.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호자($r=-.408, p<.000$)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허용적, 방관적, 피해학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폭력에 대한 태도를 갖을수록 적극적,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가해자, 적극적으로 폭력에 가담하여 가해자를 따르는 보조자, 폭력을 부추기거나 강화하는 강화자[11]의 역할도 증가하고, 피해자를 지지해주는 보호자의 역할은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중재 시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하여 중재하기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생각, 공감능력 등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 & Sim [26]도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가 비행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들의 특성, 형태, 유사성 등을 확인하여 이들에게 보다 적합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마트폰 사용의 하부 요인 중 금단 및 가상관계($\beta=.158, p=.015$), 학교폭력 역할 유형 중 가해자($\beta=.2.109, p=.036$), 강화자($\beta=6.170, p<.000$), 보호자($\beta=-7.356, p<.000$)로 나타났다. Suk & Koo [27]은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감소를 통해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며 가상세계에 몰입하게 되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 매체의 사용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학교생활 및 학습 환경, 학습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23,28,29].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금단 및 가상관계가 학교폭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확산에 대한 청소년 보호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캠페인, 광고,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및 학교폭력의 예방 및 적절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사용은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의 역할 유형 중 강화자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마트폰 사용의 하부 요인 중 금단 및 가상관계, 학교폭력 역할 유형 중 가해자, 강화자, 보호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재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 학교폭력 역할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G시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스마트폰의 사용의 하부요인과 관련된 변인들을 고려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5 The Survey on Internet Overdependence(No. 12019)*. (2015). Daegu.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2] Statistics Korea.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106
- [3]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7). *2017 Youth Statistic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4]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013).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 for Parents' with Early Adolescen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76, 1-178,
- [5] H. J. Lee & Y. J. Jo. (2010). The Exploratory Study of longitudinal Changes and Variables Predicting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2), 253-278.
- [6] S. I. Kim, C. Y. Kim & Y. S. Sung. (2013). *Go to the Brain*, Paju: Book 21.
- [7] A. Alkin, & M. Iskender. (2011). Internet Addiction and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International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s*, 3(1), 138-148.
- [8] J. K. Lee. (2011). A Study on Dispositional Mobile Phone Use Motives, Mobile Phone Addiction, and Mobile Phone Verbal Bullying of Adolescents : With a focus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1(2), 365-401.
- [9] Y. S. Hwang & N. S. Park. (2011). Predictors of Adolescents' Mobile Phone Addiction and Parents' and Teachers' Rol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5(5), 309-348.
- [10] S. H. Han & S. H. Lee. (2010). A Survey on Relationships between Mobile-Phone Addiction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2(3), 139-157. DOI : 10.21075/kacs.2010.12.3.139
- [11] C. Salmivalli, K.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A. Kaukiainen.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DOI:[http://dx.doi.org/10.1002/\(SICI\)1098-2337\(1996\)22:1<1::AID-AB1>3.0.CO;2-T](http://dx.doi.org/10.1002/(SICI)1098-2337(1996)22:1<1::AID-AB1>3.0.CO;2-T)
- [12]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LAWnB*.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15BB88EA3B74CE9AA117474F12EC94F1L
- [13] Education Policy Forum. (2017).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93) <https://kess.kedi.re.kr/post/6662608>
- [14] Y. K. Yang & C. S. Lee. (2009).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on School Violence Attitudes, Anger, and Agg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8(4), 369-378.
- [15] S. C. Park & K. I. Baik. (2004). Characteristics of MMPI of adolescent Cellular Phone Addic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9), 135-147.
- [16] M. H. Bae, J. J. Choi & C. S. Kim. (2017). A Predictive Model about Offender-Bystander and Victim-Bystander on School Violence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3), 335-363.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6.08.23.8.385>
- [17] S. Thomeée, A. Haärenstam & M. Hagberg. (2011). Mobile Phone Use and Stress, Sleep Disturbance, and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 a Prospective Cohort Study, *BMC Public Health* 11, 66-76. DOI: <http://dx.doi.org/10.1186/1471-2458-11-66>
- [18] I. Y. Ahn, C. S. Lee, C. S. Park, B. J. Kim, B. S. Cha, S. J. Lee & J. Y. Seo. (2013). Relationship Among Suicidal Ideation, Addictive Mobile Phone Use and Depressive Symptoms in Bul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9(1), 39-46.
- [19] M. Kwon. (2013). *The Smartphone Addiction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hort Version for Adolescent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 [20] K. Rigby & P. T. Slee. (1991).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victim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9), 615-627.
DOI:<http://dx.doi.org/10.1080/00224545.1991.9924646>
- [21] E. H. Jung, Y. M. Shin & S. M. Cho. (2016). The Effects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Using Temperament,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2(1), 119-135.
DOI:<http://dx.doi.org/10.20406/kjcs.2016.02.22.1.119>
- [22] C. Salmivalli & M. Voten.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u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 246-258.
- [23] H. K. Son, S. H. Ahn & H. J. Lee. (2006). Middle school Students' Addicted Use of Cellular Phone and their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7(4), 552-562.

[24] J. H. Lee, S. J. Lee, J. W. Chun, H. Cho, D. J. Kim & Y. C. Jung. (2015). Comorbid Depression Interferes with Emotional Regulation in Adolescents with Internet Gaming Disorder,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54(3), 322-329.

DOI:https://doi.org/10.4306/jknpa.2015.54.3.322

[25] S. A. Park & K. W. Park. (2017).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ir Smart Phone Addic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Concep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255-263.

DOI:https://doi.org/10.15207/JKCS.2017.8.9.255

[26] J. Y. Ha & B. Y. Sim. (2016). Juvenile Delinquency, Cyber Delinquency,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Global Health and Nursing*, 6(2), 80-88.

[27] M. S. Suk & Y. K. Koo. (2014).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Smartphone Addiction of the Adolescen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ntrol,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4), 905-928.

DOI:http://dx.doi.org/10.13049/kfwa.2014.19.4.905

[28] I. C. Im & K. A. Jang. (2017).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Excessive Smartphone Use on Attention Deficit, Learning Environment,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in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129-137.

DOI:https://doi.org/10.15207/JKCS.2017.8.9.255

[29] E. J. Kim. (2017). Factors Influencing the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Era of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8), 177-183.

DOI:https://doi.org/10.15207/JKCS.2017.8.8.177

박 미 경(Mi-Gyeong Park) [정회원]



- 2009년 8월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특수교육전공 (교육학석사)
- 2017년 12월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0년 1월 ~ 2017년 12월 : 수원

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부모 정신간호
- E-Mail : rich-mom@hanmail.net

김 진 주(Jinju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산업보건간호학 (보건학석사)
- 2015년 8월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9년 1월 ~ 2015년 2월 :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 상임팀장
- 2015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노인정신간호, 성인정신간호, 행복
- E-Mail : mhealth@kduniv.ac.kr

강 균 영(Gyun-Young Kang) [정회원]



- 2006년 8월 :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8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4월 ~ 2016년 2월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정신간호, 통합예술치료
- E-Mail : mental74@kduniv.ac.kr